

# 사랑놀음 · 대사빨 없어도... '김은숙 매직' 위력

## '미스터 션샤인' 성공적 론칭 시청률 9.7%...두자릿수 눈앞

### 구한말 시대상 · 인물 교차편집 신미양요 전투장면 영화 방불

사랑놀음에 '대사빨'에 기대지도 않았지만 '김은숙표 드라마'의 위력은 여전했다. 김은숙 작가의 신작인 케이블채널 tvN 토일극 '미스터 션샤인'이 성공적인 첫발을 뗄다.

8일 방송된 '미스터 션샤인' 2회는 전국 시청률 9.7%(닐슨코리아 기준)를 기록했다.

전날 선보인 1회가 8.9%로 시작하며 '도깨비'(6.3%)보다 빠른 행보를 보인 데 이어 곧바로 두 자릿수 시청률 진입을 눈앞에 뒀다. 올해 방송된 tvN 드라마 중 최고 시청률을 거둔 '무법 변호사'(8.9%)의 기록을 단숨에 갈아치우며 케이블 채널 역대 최고 시청률인 '도깨비'의 20.5%를 정조준했다.

'미스터 션샤인'은 '김은숙스럽지 않은 김은숙 드라마'였다. 특유의

말장난이 돋보이는 대사와 빠른 캐릭터 구축을 통한 남녀 간 사랑에 초점을 맞추던 공식은 온데간데없었다. 구한말 소란스럽고 어지러웠던 시대상을 당시 민초와 조정 대신들이 겪었던 사건 중심으로 교차 편집하며 넓게 펼쳤다. 그런 사건 속에서 조선에서 버림받은 후 미 해병대 장교로 금의환향한 유진 초이(이병헌)와 혼탁한 세상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사대부 영애 고애신(김태리), 그리고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본 국우 조직 흑룡회의 일원이 된 구동배(유연석)와 호텔을 운영하는 쿠도 하나(김민정) 등 중심인물을 한줄기로 엮는 데 성공했다.

43억 원의 제작비가 어디에 쓰였는지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신미양요 당시 조선과 미국의 전쟁을 그

린 전투 장면은 백이었다. 영화를 방불케 하는 스케일과 다양한 카메라 앵글에 눈이 즐거웠다. 이례적으로 드라마 OST에 참여한 가수 박효신이 부른 '그날' 역시 '미스터 션샤인'의 질감과 잘 들어맞았다.

방대한 이야기를 그리는 터라 방송 초반 구체적 에피소드보다 시대상과 인물 소개 중심이어서 다소 '장황했다'는 지적도 있다. 김 작가 특유의 느낌이 달한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아쉬움을 드러내는 댓글 반응도 있다. '미스터 션샤인' 관계자는 "24부작에 걸친 긴 이야기인 만큼 탄탄한 도입부가 필요했다"며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되고 인물 간 긴장이 고조되면 기존 김 작가 드라마의 맛과 신선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마블 천하 혹은 마블에 잠식당한 韓극장가



마블 영화들의 한국 극장가 잠식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한 해 동안 마블 영화를 총 관객수가 20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8일 영진위 영화관람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엔트맨과 와스프'는 이날 오전9시까지 25만 5819명을 동원, 누적관객수 217만 8236명을 기록했다. 지난 4일 개봉해 5일째 20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엔트맨과 와스프'는 7일 하루 동안 82만 1794명을 동원했다.

현재 추세라면 마블 영화들이 올해 한국 극장가에서 총 관객 2000만명을 넘어서는 것도 시간문제다. '블랙팬서'가 539만명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1120만명을 동원했다. '엔트맨과 와스프'까지 이미 누적관객이 187만2천명을 넘어섰다. 이십세기폭스에서 내놓은 또 다른 마블영화 '네드풀'이 378만명을 동원한 것을 포함하면 이미 2000만명을 넘었다. 한국의 연간 총 관객수가 2억명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올해 마블영화들이 총 관객의 10%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추세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마블 영화들은 지금까지 총 19편이 개봉해 한국에서 약 9600만명을

동원했다. 올해 1억 관객을 넘어설 지도 관심사다.

마블 영화 공세는 해마다 거세지고 있다. 올해가 역대 최고 기록이다.

지금까지는 2017년이 마블영화 최고 한국 흥행성적을 거둔 해였다. 2017년에는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725만명, '토르: 라그나로크'가 485만명,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273만명을 포함해 1483만명을 동원했다. 2016년에는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가 867만명, '닥터 스트레인지'가 544만명을 동원, 총 1411만명이 마블 영화를 관람했다. 그해에는 '네드풀'이 331만명을 불러모았다. 2015년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1049만명을, '엔트맨'이 284만명을 동원해 마블 영화 총 관객수가 1333만명을 기록했다.

해마다 마블 영화 총 관객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한국관객들의 마블영화 충성도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며, 한국 영화계가 마블영화들에 잠식당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경향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관심이 뜨거운 '어벤져스'를 비롯해 '캡틴 마블', '스파이더맨' 등이 내년 개봉 예정이기 때문이다.

연중 마블영화를 개봉 시기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처럼 4월 말에서 5월 초, '스파이더맨: 홈커밍'처럼 7월 초,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10월 중순 가량이다. '블랙팬서'처럼 2월 개봉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마블이 한 해 4편 가량 개봉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블 영화 흥행세가 워낙 거세다 보니 한국영화들은 이 시기를 피해서 개봉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4월 말 5월 초 골든 연휴를 피하고 여름 성수기도 7월 초 개봉을 피하고 있다. 마블 영화들의 2월 중순 개봉과 10월 개봉이 늘어나면, 설 연휴와

추석 연휴를 겨냥하는 한국영화들의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마블영화들은 본사인 디즈니의 개봉 전략에 따라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디즈니 실사영화, 스타워즈 시리즈들과 개봉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디즈니가 21세기 폭스를 인수하기에, 연중 디즈니 영화 개봉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영화들의 설자리가 점점 더 좁아지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한국영화 환경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평균 제작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만 산업 규모를 유지할

만큼 영화관람료 인상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영화산업은 수입의 대부분을 극장에서 영화관람료로 얻고 있는 만큼, 평균제작비가 상승하면 영화관람료 인상도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영화관람료 인상은 사실상 묶여 있기에,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투자 환경 위축과 유명 감독 및 제작사의 신작 미비 등으로 제작되는 한국영화들이 크게 줄었다. 신규 투자자들이 하나 둘 생기고 있지만 펀드 조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한국영화산업에 새로운 피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정부가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급-상영업 분리과 스크린 상한제 실시 등의 규제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악재다. 검토할 필요성이 분명한 정책들이지만 대내외 환경이 워낙 안 좋은 상황이라 차질 소스를 바로잡으려다 소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블 공세 등 대외적인 환경 변화와 대내적인 환경 악화가 맞물려 한국 영화산업에 위기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쏟아지는 마블 영화 공세 속에서 한국영화의 활로가 어둡지, 갈 길은 먼데 남은 저물고 있다.

## 색다른 리메이크, 명곡에 다시 숨을 불어넣다



2018년 리메이크를 통해 명곡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2002년부터 큰 사랑을 받은 브라운아이즈의 '비오는 날'이 올 여름 다시 재탄생한다. '비오는 날'을 작사·작곡 및 편곡한 윤건은 비투비 임현식과 함께 '비오는 날'을 2018년 감성으로 재해석했다. '비오는 날'은 다른 리메이크곡과 달리 원작가가 리메이크에 나서서 화제를 모았고, 임현식 역시 편곡과 미싱 터링 작업에 참여하며 시너지를

냈다. 웹드라마 플레이어리스트 첫 이야기와 숨겨진 명곡을 리메이크해 보여주는 새로운 형식의 뮤직드라마 '리플레이(Replayist)'도 두번째 에피소드 곡 '나비효과'를 공개한다. 이미 히어리이트 양요섭이 첫 번째 에피소드 가창자로 나서 나비의 '길에서'를 다시 불렀고, 이번에는 신승훈이 제작해 화제를 모은 신에 투시가 신승훈의 곡 '나비효과'를 리메이크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가수 이선희도 리메이크 음반 '르 데르니에 아무르(Le demier amour)'을 지난달 공개했다. 이번 앨범은 데뷔 34년차 이선희가 발매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리메이크 앨범이기에 의미가 남다르다. 이선희는 타이틀곡 김범수의 '꽃사탕'을 비롯해 나열의 '바람기어', 휘성의 '제발', 임창정의 '소주한잔', 버즈의 '겉쟁이',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를 재해석했다.

'별고 듣는' 싱어송라이터 정준일이 올가을 리메이크 앨범으로 컴백한다. 정준일은 자신의 SNS 계정에 '등불원, 장필순, 김현철, 고찬용, 조규찬, 이규호, 나원주, The story 이승환 그리고 가을 어찌면 겨울에'라는 의미심장한 코멘트를 통해 오는 컴백을 예고하기도 했다. 정준일이 90년대 가요계를 대표하는 뮤지션의 어떤 명곡을 어떻게 해석할지 벌써부터 귀추가 모이고 있다. 수 많은 명곡을 비롯해 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원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사랑받고 있다. 리메이크는 이미 대중에게 어느 정도 인지도와 성공을 거둔 작품이라는 검증된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요계 관계자 역시 "신인의 경우 이미 유명한 노래를 다시 부르면 자신의 신곡보다는 쉽게 대중에게 어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기 원작을 리메이크하더라도 모두 큰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다. 원작의 후광은 좋지만 그 후광을 넘어서지 못하거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대중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또 원작이 가진 충성도 높은 팬은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특히 음악의 경우에는 드라마나 영화처럼 다양한 변화와 변주의 폭이 크지 않기에 호불호가 보다 쉽게 갈리고 있다.



### 오늘의 운세 2018년 7월 10일 화요일 (음력 5월 27일)



▶**소식**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라. 비, 자, 흥 성씨 순간적인 감정을 물리치지 못한 채 만남을 지속하니 불안한 마음뿐이구나. 지혜롭게 정리해 안정을 찾는다면 탄탄대로를 걸겠다. 1, 2, 3월 생 파란색이 길하다.



▶**소식** 요행을 바라거나 기대하지 말라.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타난다. 끈기 있게 도전하라. 기, 비, 자 성씨는 사소한 일로 가정에 불씨가 번져 다툼이 일어날까 우려된다. 선한 마음이 앞설 때 귀인이 등장하니 용기를 잃지 말라. 닭, 쥐띠가 힘이 되겠다.



▶**소식** 마음은 크게 갖고 처한 상황을 헤쳐나가면 순조로움이 따른다. 다만 시기와 모양이 있을 수 있으니 처신을 바르게 하라. 2, 5, 10월생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불만을 품기 전에 나를 돌아보라. 기, 자, 오 성씨가 도움을 준다.



▶**소식** 1, 4, 6월생은 가는 자를 쫓거나 잡으려 해서선 안 된다. 분수를 지키고, 기쁨을 이탈하지 말라. 큰 욕심을 화를 가져오니 자중함이 좋을 듯하다. 기, 자, 오 성씨 자녀에게 건강 약화나 갑작스러운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 투기를 삼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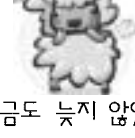
▶**소식** 3, 5, 10월생 천, 비, 오 성씨 자신감을 가지라. 의욕과 신념을 갖고 시작하지만, 갈수록 힘이 드는구나. 애정은 불만을 느끼고 있으니 어려움이 따르겠다. 여러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마음을 넓게 가질 때 새로운 향로를 열 기회가 온다.



▶**소식** 기본 내키는 대로 행동하다 본연의 자재를 잃을 수 있다. 1, 8, 9월생 주위 사람을 두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 억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때다. 기, 자, 흥 성씨 현재 만족보다 미래 지향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복색이 길하다.



▶**소식** 자포자기식 학대를 하지 말라.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아 단답하겠으나 불신하면 안 된다. 1, 5, 7월생 기, 비, 자 성씨는 예민한 성격에 고집 또한 세니 정신 질환이 우려된다. 조심하라.



▶**소식** 현실을 중시하고,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 2, 9, 11월생은 상대가 허물이 있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삶이 가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사랑하는 사람과 화합의 장을 열어 행복의 문을 열라.



▶**소식** 지나친 참전은 오히려 해를 가져온다. 먼저 나서지 말고 중립을 지키라. 피, 천, 흥 성씨는 삼각관계가 될 수 있으니 언행을 조심하라.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으니 마음을 똑같이 하라. 10, 11, 12월생 복색이 길하나 중단수 있다.



▶**소식** 4, 9, 11월생은 직업과 주택 변동수 따르나 망설인다. 확실한 목표 아래 움직이라. 목적지는 아직 멀었는데 중도에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질 격이 될 수 있다. 욕심내지 말고 목표와 계획을 확실하게 할 때 실수가 따르지 않는다.



▶**소식** 쉽게 실망하지도 말고, 너무 급히 서둘지도 말라. 기, 비, 오 성씨는 '빨리 먹은 밥이 체한다'는 옛말처럼 단계적으로 하라. 튼튼한 기초가 형성할 수 있다. 2, 8, 9월생 가정불화가 잦으면 하는 일도 막힌다.



▶**소식** 7, 10, 12월생 상대를 미워하기 전에 마음의 문을 열라. 자신감을 품고 상대를 대하라. 일 처리는 미루지 말고 속전속결 하라. 이득을 챙길 수 있다. 그러나 속임수가 따르니 주의해야 한다. 기, 자, 흥 성씨 먼 거리 여행은 잠시 보류하고 훗날 가라.